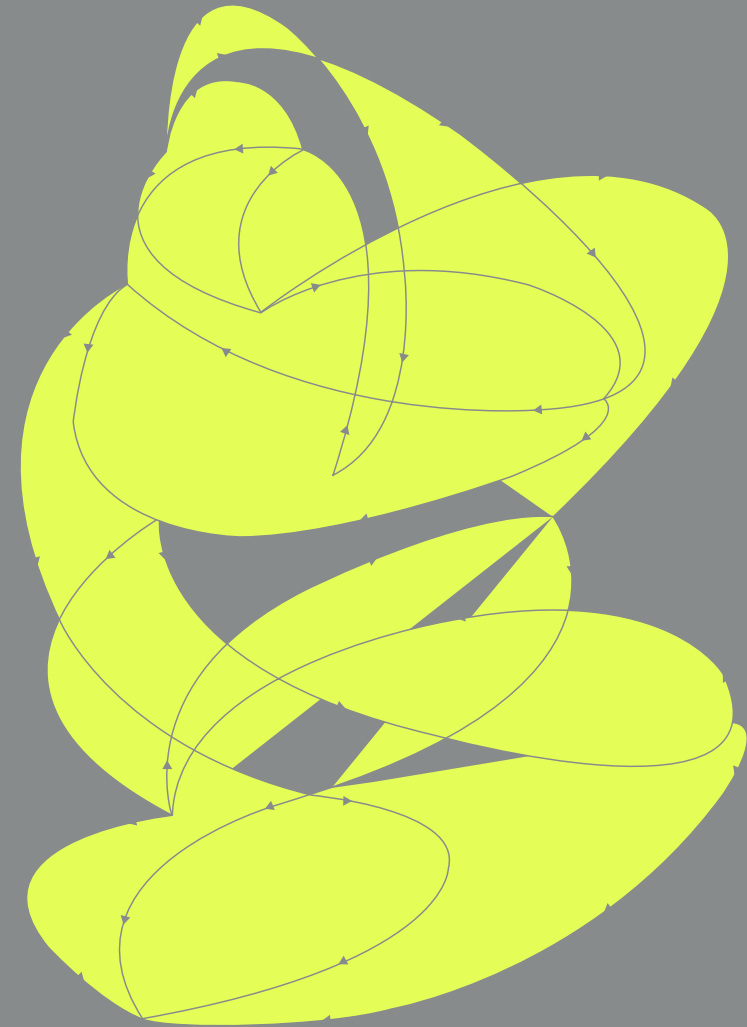


집 | 몸 | 집

An Anchored Fever



총괄 기획 강은미	번역 김지원 박보나
책임 연구 조새미	박재용 양하빈 전효경
협력 기획, 연구자 박현	영문 감수 김지원
연구자 이소임	박보나 박순홍
외부 필진 양효실 Carlos Quijon, Jr. Andy St. Louis	사진 김정현 박도현 전병철
아키비스트 박현	디자인 김아해
연구자문 안진국	출판 AGK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2023 <작가 조사-연구-비평> 지원사업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2023 <작가 조사-연구-비평>의 지원을 받아
E-book으로 발간 되었습니다.



작가소개

최성임(1977-)은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 및 동대학원에서 회화판화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2년 갤러리 도스 개인전 《집으로 가는 길》을 통해 공적 무대에서 작가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해 작업을 다양한 장소에서 선보였다. 2018년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 아케이드와 2020-21년 송은문화재단의 레지던시를 거쳤고, 송은문화재단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전시 공간에 설치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개인전으로는 2023년 온수공간에서 진행된 《눈을 감아도 보이는 툭 툭》, 2022년 이플 실내정원의 《오가닉 스펙트럼》, 2021년 송은아트스페이스 《잠시 몸이었던 자리》, 2020년 룬트 갤러리의 《황금방》, 봉산문화회관 《강을 건너는 방법》, 디스위켄드룸의 《발끝으로 서기》, 2018년 성북예술가압강의 《집이 있던 자리》, 2016년 미아리고개 하부공간에서 이루어진 장소특정적 설치작업 《24》, 2014년 송은아트큐브의 《미묘한 균형》이 있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2022년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 광교 《휘릭, 퓌글-탁!》, 더현대서울 ALT1 《I AM GROUND》, 송은 문화재단 소장품전 《Past.Present.Future.》, 2021년 광주시립미술관 《나도 잘 지냅니다》, 우양미술관 《감각의 숲》, 2020년 김중업 건축 문화의 집 《모두의 집》, 세화미술관 《손의 기억》, 2019년 세종문화회관 야외조각전 《산려소요》, 2018년 옛 채동선 가옥 《두 개의 집》, 아모레 퍼시픽 공공미술프로젝트 《Apmap 2018 Jeju》 등이 있다.

연구서 목차

기획의 글 강은미

작품해제 조새미

집이라는 우주를 건너가는 몸의 향해 일지 강은미

포스트미니멀의 시학, 공감의 조건: 최성임의 작업 카를로스 키혼 주니어

최성임의 집, '상호 혼입'하는 세계 이소임

빈-집-채우기 혹은 일상의 물수 양효실

비옥한 밭고랑 앤디 세인트 루이스

단 하나의 축에 지어 올리기 박현

작업의 마지막 조각: 최성임의 아티스트 북 조새미

작가 이력 및 필진 약력

연구서 소개

여기, 집에 거역하며 가족의 뿌리가 되고, 끊임없이 태어나는 예술 작품의 어머니인 작가 최성임이 있다. 작가의 일상을 체현하며 세상에 자리를 온몸으로 지어 낸 시간에 대한 응답으로 2023년 비평연구서 『집 | 몸 | 집 An Anchored Fever』을 엮어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으로 2022년 8월 시작한 연구사업은 작가에 대한 전방위적 연구를 가능하게 했다. 최성임의 예술 언어와 사유를 되짚어보며, 지난 10년간 활동한 작가의 작품, 전시 활동에 대한 기초 연구-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작품 목록, 전시 이력뿐 아니라 이로 인해 생산된 자료를 아카이브로 정리하여, 향후 누구든지 작가 연구를 시도할 때 1차 자료로 기능하도록 목록화했다. 더불어, 작가의 대표작 10점의 해제를 작성하여 시기와 주제에 따라 재료와 개념, 조형적 특징을 서술했다. 연구진의 시선을 통해 작가의 예술 세계를 전달함에 있어 공백으로 보이는 지점을 위한 새로운 텍스트가 생산 되었다. 이를 통해, 여성, 물질성, 신체성 등에 대한 미술사적, 미학적 비평을 통해 최성임의 작업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은미의 「집이라는 우주를 건너가는 몸의 향해 일지」는 집과 몸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최성임의 작품 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글이다. 작업에 사용된 재료, 노동의 종류, 구축의 방법 등을 소개한다. 카를로스 키혼 주니어는 「포스트미니멀의 시학, 공감의 조건: 최성임의 작업」을 통해 최성임의 작업을 포스트미니멀리즘이라는 개념으로 재해석하는 성취를 이루었다. 연구성과 공감이라는 개념으로 작가의 작업을 미술사적 시선으로 읽어내고 있다. 이소임의 「최성임의 집 '상호 혼입'하는 세계」는 작가에게 공간이 가진 양가성을 살핀다. 작가의 자의식에서 '여성성' 개념 여부와 별개로, 집의 안과 바깥, 그리고 미술 내외부의 소외된 요소를 포용하며 결과적으로 여성주의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양효실의 「빈-집-채우기 혹은 일상의 물수」는 2020년 디스위켄드룸에서 진행된 《발끝으로 서기》에 대한 비평으로 작가의 여성-예술가로서의 면모, 양육하는 여성의 일상과 작가의 미적 노동을 병치해 작가의 삶을 내밀하게 들여다본다. 이어 제시되는 앤디 세인트 루이스의 「비옥한 밭고랑」은 2021년 송은아트스페이스에서 있었던 최성임 개인전 《잠시 몸이었던 자리》에 대한 비평문으로 작가의 작업이 설치된 상태에서 정원사의 돌보는 시선으로 제시한 설치 작업들을 물질성이 도드라지도록 읽어낸다. 최성임 작가의 작품 세계에 있어 물질성과 구축성을 검토하는 글로 박현은 「단 하나의 축에 지어 올리기」를 제안한다. 작가의 작업 과정이 사물이 능동적으로 관계 맺는 행위성이라 상정하며 작가가 일궈왔던 시간을 작업을 통해 '소장'하기 위해, 작업과 삶의 균형을 찾아내고자 했던 지점을 살피고 있다. 마지막으로, 작가가 직접 제작하는 아티스트 북을 작품 활동의 연장선에 놓고 분석, 연구를 개진한 조새미의 「작업의 마지막 조각: 최성임의 아티스트 북」에서는 작품이 전시되는 마지막 장소이자 작업의 완결로서의 아티스트 북을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설치 작업이 전시장에서 제시된 이후, 다시 철수-이동-정박되는 공간으로서의 책, 온전하게 독립된 작업으로 존재하는 아티스트북에 대해 분석하는 글로 마무리 된다.

최성임의 작가로서의 여정은 '과연 이것도 예술이 될 수 있을까'라는문에서 시작했다. 작가는 집에서 수많은 작품을 잉태해, 1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성장을 도모했으며, 전국의 수많은 전시공간으로 출항시켰다. 아주 사소한 일상의 물질에 손을 뻗어 창조적인 노동을 통해 탄생한 작업들은 작가의 삶의 궤적을 따라 변모하며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가 되어가고 있다. 이번 연구서 발간이 최성임 작가가 앞으로 도약할 지평을 열어내고 예술가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